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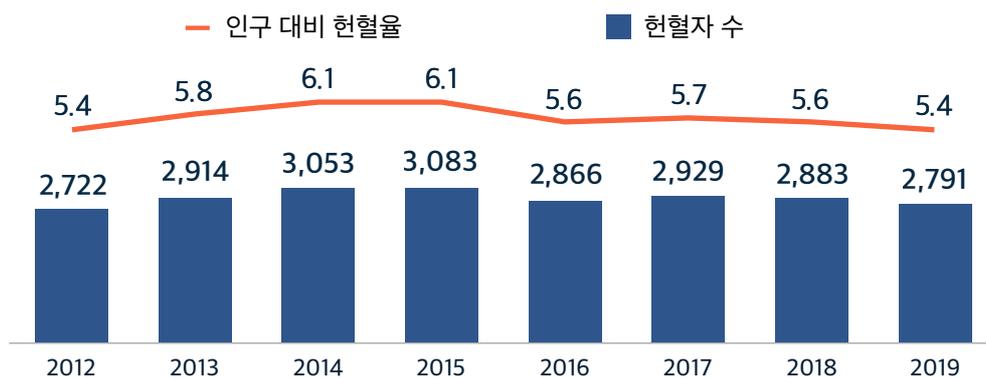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혈이 크게 줄어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 이상을 한참 밑도는 3일분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이 필요한 시점인데, 헌혈 관련 통계를 소개한다.

# 1

## 우리나라 헌혈자 수,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2019년 기준 전 국민의 5.4%)

- 우리나라 헌혈자(년 인원)는 2019년 기준 2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임
- 헌혈자 수(년 인원)는 2015년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9년은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함)
- 개인과 단체별 헌혈 점유율은 2006년부터 개인이 단체를 앞서기 시작해 2019년 기준 개인 비중이 6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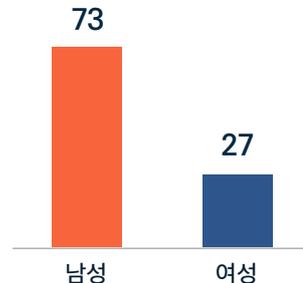
[그림] 헌혈자 수(년 인원) 연도별 추이 (%) , 천 명



[그림] 헌혈자 점유율(개인 vs 단체) (%)



[그림] 헌혈자 점유율(남성 vs 여성\*\*) (%)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e-나라 지표, '헌혈인구 및 개인 헌혈 비율', 2020.02.06.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사업통계연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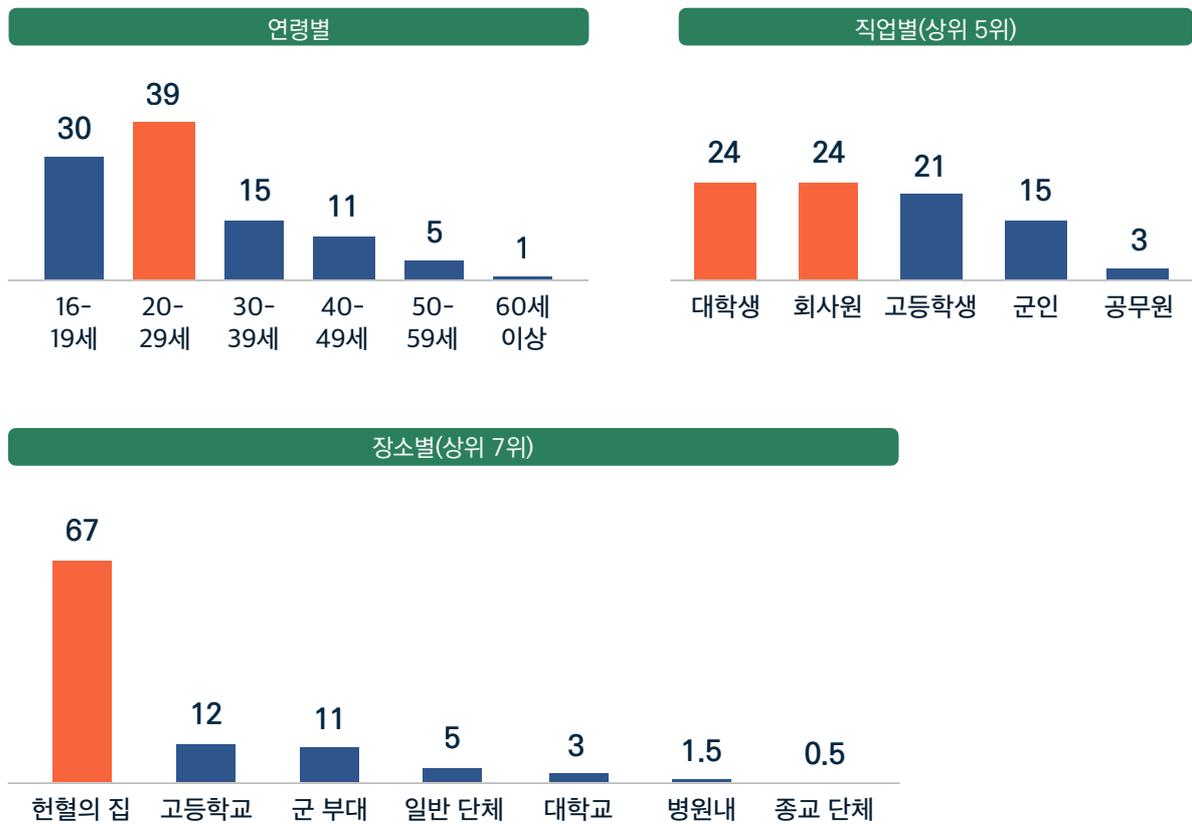
\*\* 남녀 비율은 2018년 결과 기준임(출처 : '2018년 혈액사업통계연보')

## ● 20대, 대학생/회사원 층에서 헌혈 비중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 '20대 연령층'에서 헌혈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대학생'(24%)과 '회사원'(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21%), '군인'(15%) 등의 순임
- 헌혈 장소별로는 '헌혈의 집'이 67%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12%), '군 부대'(11%)임
- '종교 단체' 헌혈률은 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림] 각 특성별 헌혈 비중(2018년 기준)

(%)



\*자료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18년 혈액사업통계연보'